



안내통신문 가정 내 다국어 사용

귀댁의 아이가 다국어 환경에서 자라나요? 축하드립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니까요! 다국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언어를 폭넓게 익힙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이 아이를 잘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다국어 사용

집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 부모의 모국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각기 자신들이 가장 확실히 잘 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언어를 아이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모국어일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모국어를 익히기 위해 부모님이 구사하시는 모국어 속에서 부모님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는 다른 언어들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전제조건을 갖춥니다.

규칙적인 유치원 등원은 독일어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이가 유치원 입원 시에 독일어를 잘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와 계속해서 부모님의 모국어로 이야기 나누세요. 아이는 유치원 내 보육교사와 다른 아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독일어를 배웁니다. 이런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규칙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함께 -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혹은 운동협회에서 - 자주 놀면 놀수록 더욱더 빨리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독일어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혼합하거나 혼동합니다!

새 언어를 배우는 첫 단계에서 특정한 실수를 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실수들은 아이들이 독일어를 잘 배우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가령 아이들은 독일어를 말하는 중에 관사를 빼먹습니다 („gib mir das Blatt"가 아니라 „gib mir Blatt") 혹은 전치사에서 실수를 합니다 („auf dem Baum" 대신에 „bei Baum"). 다국어 사용 아이들은 한동안 두 개의 언어를 한꺼번에 쓰는 일도 많아서, 예를 들어 „이건 내 Ball이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언어실력의 발달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불안하거나 의문이 드신다면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이나 소아과 의사의 도움과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독일어만 사용해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독일어만 사용하고 가정 내 언어를 거부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십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단호하게 부모님의 언어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이는 청취자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언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 훗날에는 분명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즐겁습니다!

아이의 체험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많이, 또 자주 나누세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낭독하며 함께 놀아주세요. 어떤 언어적 형식으로 사랑을 주시던 상관 없이 부모님은 아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 체험, 경험을 모국어와 연결 짓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아이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다국어 환경에서의 성장은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신의 언어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자주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의 다국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국어와 문화, 그리고 주위 환경 언어인 독일어도 아이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이에게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가족의 언어와 새 언어인 독일어 속에서 언어 실력을 넓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아이를 유치원과 미취학 단계에 잘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